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성 은 영

황 순 택[†]

충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들의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정신건강 및 이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만 55세 이상의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N=69)을 대상으로 고부갈등분석척도, 스트레스대처행동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N=71)에서도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가 일반가정 시어머니에 비해 고부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서는 특히 신체화와 우울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수동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부갈등의 주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의 주 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의 의미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일반가정 시어머니

[†] 교신저자 : 황순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Tel : 043-261-2187, Fax : 043-271-1713, E-mail : hstpsy@chungbuk.ac.kr

고부관계는 가족 내 인간관계의 한 측면으로, 혈연의 연결이 없는 타인끼리 한 남성을 매개로 하여 법적, 인위적 관계를 맺는 인간 관계라 할 수 있다(김태현, 1994). 고부관계는 두 당사자가 서로 환경과 생활양식이 다른 가정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권한과 의무가 상충되는 지위에 놓이게 되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정자, 1988; 구자경, 1999). 고부갈등은 단순한 관계성의 문제가 아니라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언급한 ‘관계의 문제들(relational problems)’, 즉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DSM-IV(1994)에 한국 특유의 문화 증후군으로 등재되어 있는 화병(hwa-byung)의 원인 또는 스트레스원으로 특히 남편과 시부모관계 등 고통스러운 결혼생활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지목되기도 한다(민성길, 남궁기, 이호영, 1990; 한정옥, 이종섭, 민성길, 1997).

이러한 고부관계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유교윤리의 약화와 개인주의, 평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의 유입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고부관계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보다 빈번하고 다양하고 심하게 표출되고 있다(서병숙, 정혜경, 1993). 또한 예전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는 찾아보기 어려워(구자경, 1999), 며느리의 교육수준 증가로 인해 무조건 순종하고 인내하는 며느리의 지위에 반발하고 불만을 표현함으로써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연, 1994; 남세진, 1991). 이러한 변화는 고부관계에서 과도기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구자경(1999)은 현대사회 고부갈등은 과거 ‘시집살이’로 표현되던 시어머니 우위형 갈등과

최근의 며느리 우위형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고부관계는 과거의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부관계 양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시어머니의 권위는 더욱 약화되며 ‘며느리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종전과는 다른 관계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부관계 양상은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전체 혼인의 9%를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1). 다문화가정이 확산되면서 고부관계의 측면에서도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학계의 관심 속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결혼이민여성, 배우자 및 그 자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부모를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에 외국인 며느리를 맞아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2010)은 결혼이민여성의 고부관계에 대해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민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고부관계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고부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김태연(1994)은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 갈등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여, 고부관계만족도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시어머니는 발달단계상 노년기를 살아가는 노인여성이다.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측면은 물론 정신의학적 면에서 부담스러운 문제들에 노출되기 쉬우며(송봉룡, 서광윤, 1985),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연령에 비해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정현애, 2008). Medley(1976)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가족관계에서의 만족을 꼽았으며, Quinn(1983)은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인자로서 건강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꼽았다. 즉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 등의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적 안정감과 정신건강에는 특히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자, 2011; 이길자, 안혜경, 김영선, 1999; 성명옥, 이해자, 2002; 손덕순, 2006; 홍달아기, 1998). 특히 한국사회는 가부장적인 가족체계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효의식을 강조해 왔으며, 고부관계 또한 성인자녀의 결혼 후에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정순돌, 이현주, 2010).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그들의 삶에서 가족은 일차적이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며, 가족관계에 의해 정신건강 또한 달라질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중요한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사용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수동적인 대처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연, 1994; 모선희, 이지영, 2002; 윤현희, 1994). 고부갈등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불만족스러운 점이나 섭섭한 점을 참고 마음에 간직하는 표출방법을 사용하는데(이경애, 1981), 이러한 특징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소통 등의 어려움을 가지는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서 참고 인내하는 수동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은영, 권지은, 황순택, 2012; 정순돌, 이현주, 2010). 모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피할 수 없는 원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대부분이 고부갈등의 원인, 삶의 질,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면에서 다루었다(박미정, 2012; 박진옥, 2011; 신동희, 2012; 이해정, 2007; 조한숙, 2009). 또한 고부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며느리 입장에서 접근하였다(김밀양, 2004). 특히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정신건강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 며느리를 둔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와 한국인 며느리를 둔 일반가정의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2012년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청각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만을 포함시켰다. 분석에 포함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N=69)와 일반가정 시어머니(N=71)의 평균연령은 72.74(SD=7.55)세였다.

측정도구

고부갈등분석 척도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고부갈등의 유형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혜자(2003)가 선행연구(유가호, 1976; 이경애, 1981; 이기숙, 1986; 이영환, 1986; 한희선, 1991; 황춘선, 1979)를 기초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4가지로 유형화(권력구조적, 역할구조적, 애정구조적, 생활구조적)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권력구조적 갈등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처리권, 경제권 등 가정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싼 문제를 말한다. 역할구조적 갈등은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로 유발되는 문제를 말한다. 애정구조적 갈등은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자관계가 고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생활구조적 갈등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환경, 연령에 의한 세대차이, 고부간의 성격차이로 유발되는 문제를 말한다. 이 척도는 총 44문항으로 작성

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고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Pearlin과 Schooler(1978), Lazarus와 Folkman(1984/1991)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Stewart와 Kenneth Lyle(1988)이 제작한 Individual Coping Style의 20개 척도와 Davis와 Gynel(1985)의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WCCL)를 번안·수정하고, 김명자(1991)의 대처양식 척도 중에서 ‘신앙에의 의지’ 4문항을 포함하여 윤현희(1994)가 22문항을 추출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앙에 의지, 문제의 재정립, 감정표출, 수동적 회피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Revision: SCL-90-R)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Derogatis(1977)의 원 척도를 번안하여 제작한 한국판 SCL-90-R(Symptom Check List-90-Revisio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신과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을 90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으며,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가지 하위 차원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12문항), 우울(12문항), 불안(10문항) 척도만 사용하였다. 우울 하위차원에서 ‘성욕이 감퇴되었다’ 문항은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방법 중에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조사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소개 받는 방식 즉 눈덩이 표집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일부는 다문화가정센터를 통해 조사하였다. 한편 일반가정의 시어머니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및 노인관련 기관(경로당, 복지관)등의 방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노화로 인해 시력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학력으로 인해 문자해독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게 있어 이런 경우에는 연구자 및 사전 교육을 받은 방문 지도사가 설문내용을 직접 읽어주고 대상자의 응답을 대신 표기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외에 문자해독이 가능한 대상자들은 스스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총 159부를 배부하여 146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6부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140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모든 자료처리와 분석은 SPSS for Windows

19.0을 사용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정신건강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F 검증과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비교

먼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과 비교집단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교해 보았다.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의 연령($M=71.68$, $SD=6.91$)은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M=73.77$, $SD=8.05$)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으로 평정한 경제적인 수준과 건강상태에서도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은 두 집단 모두 무학과 초졸이 대부분이었으며, 중졸은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약간 많았다. 교육년수로 변환하여 집단 간 차이검증을 한 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M=3.48$, $SD=3.28$)에 비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M=4.83$, $SD=4.35$)의 학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2.08$, $p<.05$). 직업의 경우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의 31.9%가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의 18.3%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직업 유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 구성의 경우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69.6%)

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14.1%)에 비해 아들부와 함께 사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chi^2=47.20, p<.00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고부갈등의 비교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집단과 일반가정의 시어머니 집단의 고부갈등 전체와 각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부갈등 전체로 볼 때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고부갈등 수준이 높았으며(표 1),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8.84, p<.001$). 고부갈등을 4가지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갈등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역할구조적 갈등 $F=22.68, p<.001$; 생활구조적 갈등 $F=17.71, p<.001$; 권력구조적 갈등 $F=9.06, p<.01$; 애정구조적 갈등 $F=8.89, p<.01$).

한편 두 집단 간 고부갈등 차이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던 학력과

가족구성 두 변인을 통제하고 총점과 하위유형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과 가족구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고부갈등 총점과 하위유형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부갈등 총점 $F=12.38, p<.001$; 생활구조적 갈등 $F=15.05, p<.001$; 역할구조적 갈등 $F=12.85, p<.001$; 애정구조적 갈등 $F=6.57, p<.05$; 권력구조적 갈등 $F=5.95, p<.05$).

고부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 검증을 통해 문항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권력구조적 갈등에서 ‘며느리와 용돈이나 생활비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38)=-2.94, p<.01$). 생활구조적 갈등에서는 ‘며느리의 스타일이 점잖지 않고 유별스레 관심을 쏟으므로 갈등이 생긴다($t(138)=-3.19, p<.01$).’ ‘며느리와 나의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t(138)=-3.98, p<.01$).’, ‘며느리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있다($t(138)=-3.55, p<.01$).’, ‘며느리의 자녀양육 스타일이 나와 많이 다르므로 갈등이 생긴다($t(138)=-2.93, p<.01$).’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역할구조적 갈등에서는 ‘며느

표 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고부갈등 비교

고부갈등	다문화가정 M(SD)	일반가정 M(SD)	자승합	df	평균자승	F
고부갈등(총점)	14.75(16.73)	5.10(7.76)	3188.32	1	3188.32	18.84***
권력구조적 갈등	1.93(2.99)	0.76(1.30)	47.65	1	47.65	9.06**
생활구조적 갈등	2.90(3.17)	1.11(1.61)	110.59	1	110.59	17.71***
역할구조적 갈등	6.19(6.60)	1.81(3.83)	660.90	1	660.90	22.68***
애정구조적 갈등	3.57(5.60)	1.39(2.46)	164.91	1	164.91	8.89**

** $p<.01$, *** $p<.001$

리의 살림솜씨가 너무 서툴러서 갈등이 있다($t(138)=-7.17, p<.01$).’, ‘며느리가 손자녀 양육을 바란다($t(138)=-4.19, p<.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애정구조적 갈등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함부로 대한다($t(138)=-3.21, p<.01$).’,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관심하므로 갈등이 생긴다($t(138)=-3.08, p<.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즉,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스트레스 대처의 비교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 대처 총점에서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의 4가지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정신건강 문제의 비교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집단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의 정신건강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M=31.77, SD$

$=22.85$)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M=23.60, SD=16.23$)에 비해 전반적 정신건강수준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84, p<.05$).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신체화와 우울수준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신체화 $F=6.65, p<.05$; 우울 $F=8.93, p<.01$). 불안의 경우 두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두 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이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던 학력과 가족구성 두 변인을 통제하고 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이를 공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정신건강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01, p<.05$).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표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스트레스 대처 비교

스트레스대처	다문화가정 M(SD)	일반가정 M(SD)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스트레스대처(총점)	18.66(9.20)	18.91(10.56)	2.23	1	2.23	0.02
신앙에 의지	3.26(4.86)	3.42(4.70)	0.92	1	0.92	0.04
문제의 재정립	3.51(3.33)	4.31(4.24)	22.05	1	22.05	1.51
감정표출	2.54(2.74)	2.37(2.04)	1.01	1	1.01	0.18
수동적 회피	9.71(3.47)	9.03(3.31)	15.82	1	15.82	1.38

표 3.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정신건강 비교

	다문화가정 M(SD)	일반가정 M(SD)	자승합	df	평균자승	F
정신건강(총점)	31.77(22.85)	23.60(16.23)	2269.01	1	2269.01	5.84*
신체화	11.97(7.70)	9.01(5.59)	299.10	1	299.10	6.65*
우울	13.75(9.78)	9.25(7.90)	702.26	1	702.26	8.93**
불안	6.28(7.06)	5.24(5.14)	37.04	1	37.04	0.97

* $p < .05$, ** $p < .01$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분석결과 정신건강에 대한 고부갈등의 주 효과가 관찰되었다($F=16.83$, $p < .001$).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의 주 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일반가정 집단에서는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F=4.05$, $p < .05$),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고부갈등보다는 스트레스 대처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였다($t(67)=1.93$, $p=.058$).

논 의

근년에 와서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확산되어가는 이러한 추세는 사회 전체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변화일 뿐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 개개인들에게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인관계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확산되면서 고부관계의 측면에서도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표 4.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집단	모형	준거변인	b	SE	β	t	R ²	ΔR^2	F
다문화 가정	1	고부갈등	.83	.17	.60	4.86***	.35	.35	16.83***
		스트레스대처	-.04	.31	-.02	-.15			
일반 가정	2	고부갈등× 스트레스대처	-.01	.01	-.11	-.74	.36	.01	
		고부갈등	.44	.25	.21	1.74	.11	.11	4.05*
일반 가정	2	스트레스대처	.37	.19	.23	1.93			
		고부갈등× 스트레스대처	-.04	.04	-.19	-1.18	.13	.02	

* $p < .05$, *** $p < .001$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들의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학력이 낮으며, 아들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 형태가 많았다. 농촌지역의 경우 대가족 형태의 가족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본 연구 참가자들은 모두 농촌지역 거주자이었던 특이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가족 형태가 더 많았다. 대가족 형태의 가족구조는 고부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유가호, 1976; 이광규, 1975).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고부갈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 중 일정 부분은 그들의 가족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 간 고부갈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가 일반가정 시어머니에 비해 고부갈등의 총점 및 4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고부갈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학력, 가족구성)을 통제하고 분석했을 때도 이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각 집단별 고부갈등의 4가지 하위영역에서 문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권력구조적갈등에서는 생활비 관련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맥락과 달리, 실질적인 경제적 빈곤에서 파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생활구조적갈등에서는 며느리의 스타일과 성격, 가치관, 그리고 자녀양육의 차이 문항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한건수(2006)는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들은 외국인 아내나 며느리와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오히려 배우자의 개인적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역할구조적갈등에서는 살림솜씨와 며느리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결혼이민여성에게 갈등원이자 지지원으로서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며(김오남, 2006), 며느리의 이주초기에는 며느리가 한국문화 및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해하고 딸처럼 생각하고 한국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한다(윤명숙, 이해경, 2010). 하지만 고부관계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와 같은 문제에서 불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애정구조적갈등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함부로 대함과 아들에 대한 무관심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결과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가 경험하는 고유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성은영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은 “부족한 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똑똑한 며느리”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결과는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 사례가 많지 않아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를 사용함에 있어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대처 중 수동적 회피전략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참고 인내하는 문화가 강요 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듯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에 주목할 10대 한국대표 '문화유전자'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인내가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여전히 한국인의 문화(혹은 정서)로서 인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통사회를 살아 온 노인들에게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화적인 이유와 함께 Hunt, Wisocki 와 Yanko(2003)의 지적처럼, 노인들은 젊은 성인들에 비해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시도와 과거를 회상하는 수동적인 대처방법으로 제한시키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의사소통문제는 단순히 한국어 구사능력과 관련된 언어소통문제라기보다는 고부간의 관계의 질에 의한 문제이며(정순돌, 박현주, 이해정, 2010), 관계의 문제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양승민, 연문희, 2009). 다문화가정의 의사소통문제는 일차적인 언어적 문제를 넘어서 관계성에 의한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상호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며, 문제해결에 있어 참고 인내하는 수동적 대처전략을 빈번히 사용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

문화가정 시어머니가 일반가정 시어머니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특히 신체화와 우울을 더 경험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학력, 가족구성)을 통제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김광일과 남정현(1978)은 한국인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어머니는 고부간의 갈등을 행동화하기 보다는 신체화, 전환의 기제를 사용하여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인 시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특히 고부갈등 상황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둔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의 경우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정신건강에 더 취약성을 갖기 쉬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에서 고부갈등이 정신건강에 대해 주 효과를 가지며, 스트레스 대처의 주 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서는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의 주 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가 고부갈등보다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엿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는 고부갈등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일반가정 시어머니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경우 비교적 외국인 며느리와의 동거비율이 높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해 며느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고부갈등은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대상자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시-농촌 간 집단별 차이 연구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주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의 연령 및 혼인 지속기간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며느리 변인들에 따라 고부갈등의 양상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며느리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와 일반가정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적 특성 및 심리학적 변인들에 관한 탐구는 고부갈등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시어머니의 성격적 특성과 같은 개인 변인 및 심리학적 변인들에 대해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고부갈등과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정신건강을 비교 검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정자 (1988).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129-160.
- 구자경 (1999).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각하는 고부간의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7-39.
- 김광일, 남정현 (1978). 정신과 입원환자에서 본 고부간의 갈등. 신경정신의학. 17(1), 27-32.
- 김미경 (2010). 결혼이주여성의 고부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자 (2011). 다문화가족 시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밀양 (2004). 고부관계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73-187.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태연 (1994). 고부갈등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이 며느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남세진 (1991). 부계이론에서 본 고부갈등: 부부체계와 고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1), 1-17.
- 모선희, 이지영 (2002). 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2(1), 65-80.
- 문화관광체육부 (2012). 한국대표 ‘문화 유전

- 자'는?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에서 2012, 10, 27 인출.
- 민성길, 남궁기, 이호영 (1990). 홑병에 대한 일 역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9(4), 867-874.
- 박미정 (2012). 외국인 며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옥 (2011). 결혼이주여성가족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 정혜경 (1993). 고부갈등에 있어서 자기통제력, 탓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19-133.
- 성은영, 권지은, 황순택 (2012).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63-383.
- 성명옥, 이해자 (2002).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18, 185-206.
- 손덕순 (2006).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 120-146.
- 송봉룡, 서광윤 (1985). 도시노인과 시골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 의대잡지*, 22(1), 441-471.
- 신동희 (2012). 다문화가족 시어머니의 외국인며느리와의 관계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민, 연문희 (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1(4), 943-966.
- 유가호 (1976).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명숙, 이해경 (2010). 농촌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20(2), 191-232.
- 윤현희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광규 (1975). 부계가족에서의 고부관계. *인류학논집*, 1(1), 119-140.
- 이경애 (1981).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에 거주하는 시모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길자, 안혜경, 김영선 (1999). 노인의 정신건강과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1(2), 181-194.
- 이혜자 (2003).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19, 31-59.
- 이혜정 (2007).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농촌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돌, 박현주, 이해정 (2010).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가 지각하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 및 그 영향요인. *한국가족복지학*, 29, 29-54.
- 정순돌, 이현주 (2010). 외국인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 5-36.
- 정현애 (2008). 노인 우울증의 중재방안에 대한 문헌고찰. *고령자·노인치매작업치료학회*, 2(1), 59-67.
- 조한숙 (2009). 농촌노인과 외국며느리의 고부관계 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0).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

- abroad/abroad_01List에서 2012, 10, 20 인출.
- 통계청 (2011).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에서 2012, 10, 20 인출.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회지*, 36(1), 195-24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09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연구.
- 한정옥, 이종섭, 민정길 (1997). 한(恨)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6(4), 603-611.
- 홍달아기 (1998).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15-12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Davis, R. & Gaynel (1985). *Developmental Patterns of Stress and Coping: Middle Age and Older Adul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 Derogatis, L. R. (1977). *The SCL-90 manual: Scoring,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for the SCL-9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linical Psychometrics Unit.
- Hunt, S. & Wisocki, P. & Yanko, J. (2003). Worry and use of coping strategies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5), 547-560.
- Lazarus, R. S. & Folkman, S.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Stress, Appraisal, and Coping]*. (김정희 역). 서울: 대광문화사. (원전은 1984에 출판)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1), 57-73.
- Stewart & Lyle, K. (1988). *Stress and Adaptation: A Multisystem Model of Individual, Couple, Family and Work Syst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1차원고접수 : 2013. 1. 28.
심사통과접수 : 2013. 3. 12.
최종원고접수 : 2013. 3. 23.

A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Eunyoung Seong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and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The Factorial Structure of the Conflict Source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Scale, Symptom Check List-90-Revision(SCL-90-R) were administer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mother-in-law of multicultural family experienced the higher stress of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lso, mother-in-law of multicultural family showed the worse about mental health that specially somatization and depression. But, coping strategies doesn't showed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2)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coping strategies in multicultural family investigated that affects the mental health, the results correlated only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mental health, korean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